



바이크!
철교를
부탁해~

사진 :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꽃과 축제의 계절



‘가야 문화권의 대표축제’

제40회 가야문화축제



올해로 40회를 맞은 가야문화권의 대표 축제, 가야문화축제가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 개최되고 있어요.

해마다 수릉원과 해반천 일원에서 열렸는데, 올해는 대성동고분군, 해반천, 가야의거리, 김해가야테마파크, 연지공원으로 축제의 장을 넓혔습니다.

독창적이고 찬란했던 철기문화를 꽃 피워낸 가락국, 김해는 가야문화 축제를 통해 가야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고구려, 신라, 백제와 함께 제4의 제국인 “가야”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결혼인 김수로왕과 허황옥의 혼례와 신행길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한 허왕후신행길은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가 될 거라고 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꼭 가봐야 될 곳은 수릉원 일원의 가야문화체험존인데요.

2,000여 년 전 김해에 존재하였던 가야고을을 재현하여 가야복식, 가야토기, 순장, 철기, 병영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가야철기체험장에서는 철의왕국인 가야시대 제철과정인 채광, 제련, 주조 등을 전시와 체험을 통해 배워볼 수 있답니다. 또, 해반천에는 가야배와 인도배를 띄운 뱃길체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40회 가야문화축제, 가족들과 함께 가도 즐겁고 학교나 유치원에서 단체관람을 가도 너무 좋을 거 같죠? 자, 우리 모두 가야문화도 배우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들 수 있는 축제를 신나게 즐겨보아요!!



관람
한대요~



두근두근 연지공원의 봄

봄이 가장 아름다운 김해의 명소, 벚꽃과 튤립이 눈부시게 피어나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연지공원 아닐까요. 김해시 내동 일원에 자리한 연지공원은 1930년대 만들어진 저수지에 연꽃이 아름답게 피면서 “연지(蓮池)”란 이름이 지어졌다고 해요. 2만7200㎡의 넓은 호수와 주변 6600㎡에 조성된 휴식공간을 갖추고 있는 소중한 도심 속 공원이지요. 공원은 연꽃광장 등 광장 5곳과 야외공연장, 야생화 동산, 벚꽃산책로 장미터널 등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또, 3월부터 11월까지 음악분수를 가동하는데, 멋진 음악과 함께 연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분수쇼는 김해의 명물로 부산과 경남의 많은 손님들을 불러모르고 있어요.

특히 저녁 8시부터 40분간 펼쳐지는 레이저쇼와 워터스크린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답니다. 수변 데크에 앉아 음악분수를 보고 있노라면 내 고장 김해가 참 살기 좋은 곳이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봄꽃이 가득한 연지공원의 황홀한 모습은 매주 티비에서도 만나볼 수 있어요. 어린이들에게 인기 많은 “개그콘서트-HER” 코너 배경에 연지공원이 딱!

〈음악분수 운영문의 ☎330-4413〉



김해 9경의 하나, 신어산 철쭉



매화부터 시작되어 벚꽃, 튤립으로 이어지는 봄꽃들의 향연은 수줍게 분홍빛 얼굴을 내미는 철쭉으로 마무리 된답니다.

해마다 5월이면 “신어산 철쭉축제”가 열리는 거 알고 있나요? 김해9경의 하나인 신어산 철쭉, 부모님 손을 잡고 신어산에 올라 푸른 하늘과 예쁘게 피어난 철쭉제도 즐겨보세요!!



경전선 폐선철로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김해낙동강레일파크”가 4월 29일 개장합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신나는 레일바이크, 김해의 특산물인 산딸기 와인을 맛볼 수 있는 와인동굴, 기차 안에서 차와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열차카페, 그리고 시원한 낙동강 전망이 펼쳐지는 철교전망대까지 와글와글 어린이기자단이 미리 다녀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린이 기자가 간다!

김해낙동강레일파크

레일바이크야, 철교를 부탁해



생기 넘치는 봄에 맞추어 김해시 생림면에 김해낙동강레일파크가 개장했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교 위를 지나가는 레일바이크! 시원한 바람과 잔잔히 흐르는 낙동강의 풍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레일바이크를 타고 한창인 봄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주석초 5학년 이예은 기자>

레일바이크는 4인용이라서 앞자리의 두 명이 열심히 페달을 밟고 뒷자리는 응원을 해주면 된답니다. 왕복 3km라서 돌아올 때는 힘들어서 속도가 잘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풍경이 너무 좋아서 즐겁게 탔습니다. 참, 전망대의 망원경은 아이들이 잘 볼 수 있게 낮았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봉명초 4학년 문서영 기자>

레일바이크를 탈 땐 앞의 레일바이크와 10m 간격 유지, 철로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안전벨트 매기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대청초 5학년 허유정>

레일바이크를 타고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철길 위를 달렸는데 강바람이 시원하고, 강위에 떠 있는 오리도 구경하여 참 좋았어요. 낙동강레일파크 가까운 곳에는 생림캠핑장도 있다고 하니 다음엔 우리가족이 다같이 캠핑을 하면서 레일바이크도 타고 신나게 놀아야겠어요. <분성초 5학년 김동근 기자>

와글와글 어린이 기자단



베리의 산딸기 마을, 와인동굴



와인동굴은 90년 정도 쓰던 생림터널을 이용해 산딸기 와인 시음장과 와인의 역사 등을 알 수 있도록 멋지게 꾸민 곳이에요. 기차길과 터널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가장 멋있었던 곳은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소망나무였는데, 브로콜리 같은 모양 나무 밑으로 해파리의 다리처럼 생긴 줄들이 시간이 지날 때 마다 색이 바뀌어서 정말 예쁘면서도 신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울하초 6학년 이동주 기자>

재미있는 포토 포인트와 여러 가지 조명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와인동굴. 와인터널의 마스크트인 ‘베리’라는 캐릭터는 무척 귀여워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베리의 산딸기 마을에서 귀여운 ‘베리’와 사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우암초 5학년 양정은 기자>

시원하게 낙동강을 조망하는 철교전망대

레일바이크를 타고나서 올라가본 낙동강 철교 전망대. 그곳에서 낙동강의 풍경을 훤히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신나게 레일바이크를 타며 흘린 땀을 식히며 멋진 낙동강 전망을 보며 사진도 찍을 수 있어서 1석 2조! 가족들과 와서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에게도 놀러가 보라고 말해줘야겠어요. 혼자 알기는 너무 아까운 곳 바로 “김해낙동강레일파크”이지요. <우암초 5학년 양정은 기자>

동네방네 역사가 깃든 곳, 대동면

대동(大東)은 김해의 동쪽 아래편에 위치한데서 유래한 명칭으로 대도시 부산과 연결한 평야지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동남부에 낙동강이 흐르고 북서부로는 신어산, 까치산, 백두산이 둘러싼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구는 7,200여 명입니다.



아름다운 꽃과 채소가 생산되는 선진농촌

1920년대에 낙동강변을 농지로 개척하기 시작하여 제방을 축조하고, 1967년 대동 운하를 개통하여 농업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1970년초 장미재배를 시작으로 현재 400여 농가 200ha에 장미, 거베라, 국화, 금어초, 안개꽃, 카네이션, 백합 등을 재배하여 국내 꽃 소비량의 8% 정도를 생산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꽃 생산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넓은 평야에 부추, 당근, 배추, 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등 싱싱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선진농촌 지역이지요.

남명 조식선생이 학문을 가르치던 산해정(山海亭)

조선시대의 저명한 유학자인 남명 조식(曹植 1501~1572) 선생이 30년간 학문과 덕을 닦으며 제자를 가르치던 서원 산해정(도지정문화재 125호)이

대동면 주동리(대동로 269번 안길 115) 있습니다. 또, 가야시대의 유물이 많이 출토된 예안리고분군(사적 261호)이 있는 역사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산해정(山海亭)’이라는 이름은 높은 산에 올라 바다를 굽어보는다는 뜻으로, 학문을 닦아 경치가 높아지면 경륜과 도량이 바다와 같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두산까지 걸어서 한 시간??

대동면에는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과 이름이 같은 백두산(白頭山 359.2m) 있습니다. 대동초등학교에서 2.2km 한시간 남짓만 걸으면 백두산 정상에 올라 정기를 받을 수 있으니 김해시민의 특권이라 할 만 하죠? 따뜻한 봄날 백두산에 올라 바라보면 낙동강 건너편 까지 훤히 볼 수 있습니다.



네 꿈을
포켓처럼!
펼쳐라!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외교관'

외교관은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고 나라 간의 의견조율에 중요한 사람! 나는 열 살 때부터 외교관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외국어 능력과 사고성이 필요해요. 중국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요.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알리는 직업이니 우리나라에 대해 잘 알고 깊은 애국심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제가 훌륭한 외교관이 될 수 있을 거 같지 않나요?

레터-22 전

더 뛰어난 비행기

나는 항공우주과학자가 되어서 전투기 개발하고 싶어요. 레터-22 전투기 보다 더 화제가 일어나면 캡슐형 비상탈출 장치가 부서져도 도마뱀이나 불가사리처럼 재생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과학잡지와 과학다큐, 기사, 방송들을 꼬박

김해출신의 자랑스러운 '뮤지컬 배우'가 될 거예요

김은서 기자(대청초 6학년)

제 꿈은 뮤지컬 배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맘마미야'를 보고 난 후부터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춤과 노래를 하는 모습에 매력을 느껴 뮤지컬배우라는 꿈을 꾸게 되었지요. 노래와 연기, 춤의 3박자가 잘 맞아야 할 수 있는 뮤지컬배우는 다른 직업보다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꿈을 갖고 노력한다면 꼭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무대 위의 나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 여러분, 김해출신의 자랑스러운 뮤지컬 배우 김은서! 기대해 주세요~

5살 때부터 내 꿈은

저는 5살 때 TV에서 제트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
조종사가 되려면 건강한 몸은 기본!! 배
해야 하지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공
분야는 조금 어렵기도 하네요.
제트기는 일반 비행기와 달리 공군에
공군에 입대를 할 계획이지요. 사나이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하루 만에 집 여채도 똑딱! '3D 모델러'

홍지혁 기자(경운초 5학년)

미래에 주목받고 있는 직업 중 하나인 "3D 모델러".
"3D 모델러"는 3D로 캐릭터나 물건의 골격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사람이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입체적인 3D로 만들고, 렌더링 작업을 거쳐 최종 작업물을 완성시킨답니다. 3D모델링은 게임, 3D영화, 애니메이션, 건축,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는데, 얼마 전엔 중국에서 이 기술을 이용하여 열채의 집을 하루 만에 똑딱 만들었다고 해요. 굉장하지 않은가요?
책에서 처음 접했을 때부터 흥미로웠고 알면 알수록 더 관심이 가는 3D모델링! 세계적인 3D 모델러가 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내 꿈은 '대통령'

나의 꿈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가
사람들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배
합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이인 지금은 우선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신문과 뉴스를 보며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하
또,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한사람의 훌륭한 사
이기에 공중도덕도 잘 지키려고 합니다.

김동혁 기자(구봉초 4학년)

교과'

요한 역할을 하는
...
해요. 그래서 영어,
라를 세계에 널리
고 있어야겠습니다.

창의력 대장인 나의 꿈은 '카피라이터'

박수현 기자(삼계초 5학년)

카피라이터는 상품의 가치를 멋진 문장으로 표현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 방송국, 홈쇼핑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하고 또 일자리도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카피라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광고홍보학과, 신문방송학과 등을 전공하면 되구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창의력이라네요!! 나는 창의력이 뛰어나고 종종 사차원이라는 얘기도 들으니 꿈을 이루기 위한 1단계는 합격이죠?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서 꿈을 이룰거예요.



장윤호 기자(봉명초 5학년)

투기 보다 를 만들 거예요!

같이 빠른 속도로 나는 비행기의 엔진을
성능과 내구력이 좋은 비행기, 비행 중
자동으로 작동하고, 동체나 날개부분이
어 절대 추락하지 않는 멋진 비행기를 꼭
학교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박 챙겨보고 있습니다.



허유정 기자(대청초 5학년)

사이버상의 또 다른 나를 만드는 '아바타 디자이너'

아바타란 인터넷이나 가상현실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래픽 아이콘인데요, 이런 아바타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아바타 디자이너는 애니메이션과, 시각디자인학과 등을 전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미술적 감각이 있으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의 컨셉을 정하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 아바타의 움직임을 디자인하는 일을 해야 해서 패션감각과 유행을 잘 알아야 해요. 가장 중요한 일은 현실세계의 사람을 깊이 연구 하는 것이죠. 어때요? 사이버상에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드는 것! 매력적인 직업이지 않나요?

방진호 기자(관동초 4학년)

'제트기 조종사'

는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고는 제트기
니다.
비행기의 구조와 원리 등 공부도 많이
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항공과학
들어가야만 탈 수 있기 때문에 커서
서 내가 목표로 한 꿈을 이루기 위해
.

우리 식물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식물유전공학자'

김민교 기자(신명초 5학년)

여러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트리로 수입되는 나무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던 구상나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외국에선 우리의 식물들을 가져가 그것을 발전시키지만, 우리는 우리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초등학교 4학년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을 듣고 저는 식물유전공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식물들의 유전자를 깊게 연구하여 더욱 발전 시키려 하는 제 꿈을 응원해주세요!

은 기자(주석초 4학년)

력'

난한 하고 힘이 없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려해야 된다고 생각
우리 반에서 어려운
또, 좀 어렵긴 하지만
고 있어요.
민이 되는 것이 먼저

동물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동물매개치료사'

성유정 기자(덕정초 6학년)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동물을 너무나 좋아하는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은?
● 동물매개치료사!! 동물매개치료란 따뜻한 감정과 체온이 있는 동물을 통해 사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자폐증, 난독증 같은 심리치료는 물론, 심리적 안정을 통해 심혈관질환이나 치매 치료도 가능하다니 대단하지 않나요?

● 우리나라에는 아직 동물매개치료학과가 별로 없지만 나는 꼭 동물매개 치료사가 되어 동물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김해365안전센터

어린이기자단에서 김해시청 민원청사 1층에 있는 '김해365안전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김해365안전센터'는 김해시의 치안, 교통, 환경, 재난상황 등을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 긴급할 때 신속히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네요. 방범용, 어린이안전, 주정차단속, 재난감시, 쓰레기 투기 단속 등 8개 분야 총 997대의 CCTV를 24시간 관리를 한답니다. 경찰 뿐만 아니라 김해시청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례초 6학년 김려은 기자>

'김해365안전센터'에서는 수백대의 cctv를 40명의 인원이 3교대로 근무하면서 하루종일 감시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우리 김해는 범죄가 줄어들고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에서 하는 일을 알게 되어 좋았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365안전센터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삼성초 4학년 강예은 기자>

센터에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리모콘 버튼을 누르자 흰 벽인 줄 알았던 곳이 투명한 창으로 변해 엄청나게 많은 CCTV와 김해지도가 나타났어요. 난 그제 너무 신기했어요. 김해365안전센터에서 늘 우리를 지켜 봐 주셔서 든든하고 힘이 나요. <구지초 5학년 정소윤 기자>

센터에서는 차들이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 CCTV에 찍힌 차량번호를 확대하여 단속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운전자는 과태료를 내야해요. 견학을 마치고 부모님께 단속하는 사람이 안보인다고 아무데나 불법주정차를 하면 365안전센터에 찍히니 주의하라고 말씀 드렸답니다. 직접 가지 않고 영상으로 범죄자나 불법주정차 차량을 잡아내는 것이 신기했어요. <계동초 5학년 권의찬 기자>



센터 상황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많은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첩보영화를 보는 것처럼 신기했어요. 그동안 영화속에서만 보던 상황을 실제로 보다니!! 정말 뿌듯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김해에 365안전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안 뒤로 우리 김해가 더 안전해진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석봉초 김나현 기자>

피카소에서 앤디워홀까지

<신안초 5학년 조강민 기자>



페르낭 레제의 "곡예사와 음악가들"

벚꽃이 화사하게 핀 날 가족들과 문화의 전당 미술관 "피카소에서 앤디워홀까지" 전시회에 다녀왔어요. 피카소를 비롯한 유럽 미술거장들의 명화가 김해에서 최초로 전시되고 있어서 꼭 가보고 싶었지요. 전시회에 대한 설명은 입장할 때 빌린 이어폰을 귀에 꼽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었는데 이걸 "오디오 가이드"라고 한대요.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린이들도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전시는 여섯 개의 작품테마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특히 피카소의 <황소 시리즈>를 통해 어떻게 황소의 형태를 단순화시켜 추상적인 선으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내가 다음에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도 머리 속에 떠올랐어요.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좋았던 작품은 페르낭 레제의 "곡예사와 음악가들" 이에요. 그림 속 인물들의 서로 다른 표정과 색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책에서만 보던 그림을 원화로 보고 설명도 들을 수 있어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전시기간 2016. 3. 11~6. 26

장소 김해문화의전당 미술미술관

재미있는

컬러링

※나만의 색으로 완성해볼까요?



가야의 수로왕과 허황후의 결혼 설화 중 혼례를 치르는 장면

왕과 왕비는 혼례를 치르고 두 밤과 한나절이 지나 대궐로 돌아왔다. 이후 왕과 왕비는 141년 동안이나 함께 하면서 가락국을 번영시키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다스렸다.

와글와글 김해 참여안내

그동안 "와글와글 김해"의 애독자 었다구요?
읽기만 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직접 쓴 글을 보내주세요!!
"와글와글 김해"는 어린이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홍보담당관실 ☎330-3063

참여분야

고민상담, 동시,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공연 전시 소개 등

작성방법

A4용지 반장 이내 분량의 한글 파일로 작성

원고접수

원고에 어린이 이름, 주소, 학년, 연락처를 적어서 6월 30일까지 kilyoon@korea.kr로 보내주세요~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투고료를 지급합니다!

제 고민은...

꿈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계동초 5학년 김주원 기자

어릴 때 나의 꿈은 엄마였고, 커가면서 아나운서, 조련사, 건축가, 작가 등등 다양한 꿈을 가졌었지요. 지금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뿌듯할 것 같아 초등학교 선생님도 되고 싶고, 그림 그리는 것 특히 귀여운 일러스트를 그리는 것을 좋아하니 일러스트 레이터가 되고 싶기도 해요. 둘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여러 가지 직업에 관심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다는 건 어린이답고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네요.

초등학교 선생님도 분명 보람있는 직업이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면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것도 멋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근무하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어린이 책을 펴내면 어떨까요? 그러면, 선생님, 작가,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꿈을 모두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꿈 많은 소녀, 김주원 어린이는 분명 다 잘할 수 있을거예요.

피아노와 바이올린 중 무엇 배워야 할까요?

수남초 4학년 위시후 기자

얼마 전 나는 피아노 콩쿨대회에 나갔었어요. 준비기간 동안 피아노 연습도 힘들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생각에 긴장되어 밥맛까지 없어졌어요. 대회가 끝나기만하면 4년간 배워온 피아노를 그만두고 바이올린을 배워야지했지만 막상 그만두면 그동안 배운 것을 금세 잊어버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피아노를 계속할지 바이올린을 배울지 고민되는 나, 어떻게 할까요?



피아노 콩쿨을 준비하며 많이 힘들고 긴장했던 어린이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하지만 대회를 통해 한 곡을 멋지게 칠 수 있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피아노 실력도 부쩍 늘었을 거예요. 무엇이든 고통 없이 발전도 없는 거랍니다. 지금 피아노를 그만두는 것 보다는 주2~3회로 레슨을 줄이고 주1회 정도 바이올린을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꼬마음악가 위시후 어린이 화이팅!

/ 인기짱음악학원 김민희 원장님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요

분성초 4학년 박수원 기자

나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었어요. 목욕도 시키고 배변훈련도 시키고 잘 돌봐줄 자신이 있지만 엄마는 아파트에 살아서 안된다고 해요. 또, 낮에 계속 혼자만 놔두면 동물도 외로울 거라고 해요. 개나 고양이가 같은 반려동물을 꼭 키우고 싶은 나, 어쩌면 좋을까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귀여워서 키워보고 싶어 하는 어린이들이 많죠? 하지만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소음, 냄새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웃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낮에 계속 반려동물 혼자 있어야 하는 환경이라면 동물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도 감정이 있는 생명이고 한 번 반려동물을 데려오면 15년 정도는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꼭 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청거북이나 금붕어는 어떨까요?

새 학년, 새 친구 사귀기 어떻게 할까요?

봉명초 4학년 문서영 기자

해마다 봄이 오면 맞이하게 되는 새 학년 새 친구들. 봄이 될 때 마다 나는 새 선생님과 새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장난꾸러기나 고집 센 친구도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한 그런 마음으로 새 학년 새 교실에 들어서는 나, 어떻게 하면 새 친구 사귀기가 쉬워질까요?



새 선생님께서 적응도 해야 하고 새 친구들도 사귀어야 하는 봄은 누구에게나 설레고 긴장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네요. 교실 안에 가득한 친구들 중엔 장난꾸러기나 고집쟁이도 있겠지만 먼저 웃으며 다가 가서 말을 걸어보세요. 빨리 친해지고 싶은 맘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격은 달라도 친해지고 나면 다 좋은 친구들이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말 안듣는 동생이 미워요~

신명초 4학년 방진석 기자

엄마는 출근하시면서 항상 형인 저에게 동생을 잘 챙기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말쑥꾸러기 내 동생은 제 말을 잘 듣지 않고, 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컴퓨터 게임도 많이 하고, 책상 정리도 잘 안하고, 불량식품도 사먹고, 학교 다녀오면 옷도 여기저기 벗어 던져놓습니다. 귀엽기도 하지만 말을 안들을 땐 밉기도 한 내 동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도 이제 겨우 4학년 어린이인데 의젓하게 행동하고 동생도 돌보는 모습이 참으로 든든해 보이네요.

지금은 형을 너무 힘들게 하는 동생이지만 조금만 기다려주라고 말하고 싶어요. 또, 혼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족들과 의논해 보세요. 진석이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림책이 몇 권 생각났어요.

“내 동생 싸게 팔아요(임정자 글, 김영수 그림)”와 “돼지책(앤서니 브라운 저)”입니다. 아빠, 엄마, 동생과 함께 읽어보면서 마음 속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이상한 엄마(백희나 저)”를 읽어보면 직장생활 하는 엄마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을거예요. 멋진 형아 방진석 화이팅!!

김해FC 홈 개막전을 다녀와서



석봉초 6학년 신서현

2016년 4월 2일 김해운동장에서는 김해FC 홈 개막전인 김해시청 대 강릉시청의 경기가 열렸어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인 슈틸리케 감독님께서도 방문하셨습니다.

시작 5분전이 되니 경기장은 관중들로 인산인해였고 각 팀의 선수들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포함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입장을 했습니다. 나도 그 아이들 중 하나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섰던 것이 처음이어서 떨리기도 했지만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가 시작되니 사람들의 응원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김해시청팀이 공을 몰고 골대 가까이 가면 뜨거운 함성 소리가 내 귓가에 울려 퍼졌지요. 하지만 후반전에서 강릉 FC가 1점을 먼저 얻었고 또 추가 득점까지 했어요. 우리 김해 FC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넣지 못해서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결과보다는 최선을 다 한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해시청FC 선수들, 열심히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여름이 반짝

김해시에서는 매년 한 권의 책을 정하여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김해의 책 선정 10주년>을 맞아 올해는 김해의 책으로 강운중 작가의 “카메라 편견을 부탁해”를, 어린이 도서로는 김수빈 작가의 “여름이 반짝”을 선정했습니다. 어린이 도서 “여름이 반짝”은 같은 반 친구였던 유



하의 죽음을 계기로 어린이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다시 만나고 제대로 작별하고 성장의 한 마디를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아픔으로부터 단단해지고 편견과 외로움으로부터 서로를 찾아내고 마침내 반짝이는 선물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단정한 문장과 맑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올해 가을에는 이 작품으로 “가족극”이 공연되고, 10월 12일에는 김수민 작가와의 만남이 “기적의 도서관”에서 있을 예정이니 미리 미리 읽어두자구요.

먼저 읽은 친구들의 한줄 서평

- 저녁 7시 7분!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비눗방울이 머리위로 올라와 마법을 부릴 것만 같다. - 대정초 6학년 김은서
- 여름 밤의 별 같은 우정이 반짝인다. - 분성초 5학년 김동근
- 유하가 떠나고 비눗방울에서 유하를 만난 세 친구의 모습, 그리고 유하의 유품을 찾아내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다. - 삼계초 5학년 박수현



독서장애를 겪던 소녀가 멋진 그림책 작가로
패트리샤 폴라코

풍부한 상상력과 자신의 어릴 적 경험을 바탕으로 가슴 뭉클한 메시지를 담은 그림책을 쓴 작가 패트리샤 폴라코! 하지만, 이 작가는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충격 때문에 독서장애를 겪던 아이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가르침 덕분에 자라는 멋진 그림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을 여러 편 남긴 그림책 작가가 될 수 있었답니다. 이런 작가의 경험은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존경합니다, 선생님”이라는 책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또, 패트리샤는 러시아 출신 부모님을 비롯하여 아일랜드와 유대인 친척 등 다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요, 이런 환경이 예술적인 감흥을 불러 일으켜 “할머니의 조각보” “한여름밤의 마법” 등 좋은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했어요.

혹시, 형제 간의 다툼으로 속상해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오빠와 나는 영원한 맞수”, “빨간머리 우리 오빠”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작가가 친오빠와 매일 같이 다투고 서로 경쟁하며 겪은 이야기를 통해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 형제(자매, 남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자료제공 : 칠암도서관 송희정 사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어린이책 작가



소외되고 보잘 것 없는 것들에 대한 사랑
권정생



<몽실 언니>, <강아지 똥> 으로 널리 알려진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
<사과나무밭 달님>, <하느님의 눈물>, <랑랑별 때때롱>,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한티재하늘>, <도토리 예배당 종지기 아저씨>, <무명저고리와 엄마>, <엄마가 투리>, <강냉이> 등 많은 작품을 남긴 권정생 선생님은 작고 보잘 것 없는 것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굴곡 많은 역사를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을 보듬는 진솔한 작품으로 많은 어린이와 부모님들의 가슴을 울렸던 분이랍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과 투병으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 누구보다 맑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동화작가로 유명해진 뒤에도 경북 안동시 조탑마을의 직접 지은 5평짜리 오두막집에서 강아지와 돌이 살며 검소한 삶을 실천하셨지요. 2007년 5월 17일 “내가 쓴 모든 책은 주로 어린이들이 사서 읽는 것이니 모든 인쇄수입은 어린이들을 위해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유언을 남기고 낮고 소박한 삶을 마감하신 선생님의 삶은 <강아지똥 할아버지(장주식 저)>라는 책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선생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래요.

